

사회복지 주간 동향(23.11.6.~11.10.)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상갈동, 보라동,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와 합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보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수지구청역 주변에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발굴과 제보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힘
 - 이날 활동에는 용인시무한돌봄센터, 수지무한돌봄네트워크팀, 풍덕천1동 맞춤형복지팀, 수지노인복지관에서 30여 명과 경기도에서 참여함
 - 이들은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상담창구를 열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지를 전달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독려함,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기 이웃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무한돌봄센터 등을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함
 - 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통보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 6회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319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지킴이, 동절기·하절기 연 12회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음
 - 시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위기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제보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함
- * 기흥구 상갈동과 보라동,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별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섬
- * 보라동은 지난달 31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업무협약에는 보라동행정복지센터, 보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명옥), 한전MCS 서용인지점(지점장 장경민) 등 3개 기관이 참여함

- 협약에서 3개 기관은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한 제보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 ▲취약계층 대상 복지사업 공동 추진에 협력하기로 함
- 향후 한전MCS 서용인지점은 전기검침 업무를 수행하며 주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제보할 예정, 동과 협의체는 제보받은 위기가구에 대해 상담과 조사를 지원할 예정, 3개 기관은 향후 취약계층 LED 등 무상교체사업, 방한방품 단열 시트 부착 등 복지사업도 공동 추진할 계획
- 동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해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동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알리고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제보해달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 전단지과 홍보물품을 배부함
- *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8일 상갈동민의 날을 맞아 경기도박물관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 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상담을 통해 만성질환 등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 지역에 보완돼야 할 복지서비스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은 추후 복지서비스 제공에 반영할 예정
 - 이춘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힘
 - 동 관계자는 “동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곽근배)는 지난달 24일 유동 인구가 많은 어정역 일대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캠페인을 진행
 - 곽근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발굴하는 것과 동시에 주민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을 알리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힘
 - 동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신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동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복지정책과 나눔복지팀, 상갈동/보라동/동백3동 맞춤형복지팀)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민·관(장애인복지과, 장애인분과) 합동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 에버랜드 주차장 일대에서 안내문과 홍보물품 배포 >



-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일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힘
 - 이날 시와 처인구 직원,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에버랜드를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하고, 주요 위반 사항과 과태료 등을 소개하는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관련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가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
 - 캠페인에서는 최근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표지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시는 상습위반 신고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
 -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곳이다”라며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유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로 어르신 나들이 행사 지원



- * 용인특례시 처인구 유림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일 저소득 홀로 어르신 나들이 특화사업 ‘아름다운 동행’을 진행했다고 5일 밝힘
 - 행사에는 협의체 위원 10명과 어르신 10명이 참여
 - 이번 사업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거동이 불편한 홀로 어르신과 2인 1조로 팀을 이뤄 일월수목원과 화성행궁을 방문. 참여자들은 수목원 관람, 도장찍기 체험, 행궁어차 탑승 등의 다양한 활동과 함께 나들이를 함
 -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꽃구경도 하니 기분이 좋아졌다”며 “행사를 마련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함
 - 고상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여하신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이 됐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동 관계자는 “행사를 마련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유림동 맞춤형복지팀)

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영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지구, 유림동, 서농동, 마북동, 동천동에 성금 이어져**



- * 용인특례시 수지구와 처인구 유림동과 기흥구 영덕1동, 서농동, 마북동 등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탁이 이어짐
 -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일 현대모비스 AV랩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용 키오스크를 전달했다고 밝힘
 - 이종현 마북동주민자치위원장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정보화 교육용 키오스크를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말함
 - 고봉철 AV랩 상무는 “이번에 설치한 교육용 키오스크가 어르신들 정보화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함
 - 동천동 주민센터는 시립동천자이1차어린이집 원생 16명과 인솔교사 3명이 4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1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힘, 이 성금은 어린이집 원생들이 아나바다, 바자회 등을 통해 직접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함

-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번 기부활동이 아이들에게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영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재훈)는 지난 1일 풀무원녹즙 용인기흥점(점장 김채옥)과 저소득 홀로어르신에 건강 음료 배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우리 동네 건강돌보미’ 협약을 맺음
 - 풀무원녹즙 용인기흥점 가맹점은 홀로 어르신 20가구에 앞으로 8개월간 매주 2회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등에 연락하기로 함
 - 한편 수지구는 지난달 31일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이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10kg짜리 쌀 30포를 기탁했다고 밝힘
 - 2018년부터 매년 농사지은 쌀을 기부해온 이 의원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작지만 따뜻한 관심과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함
 - 앞서 서농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미란)는 지난 달 3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노인복지관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
 - 이 성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것
 - 중앙동과 유림동도 용인대 CEO 총동문회(회장 김현철)가 지난달 30일 저소득 어르신 2명에게 전달해달라며 성금 100만원(각 50만원)을 기탁했다고 감사의 뜻을 밝힘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수지구 사회복지과, 유림동/영덕1동/서농동/마북동/동천동 맞춤형복지팀)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즐기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를 반영한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 발표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숲과의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를 비전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함

- 산림복지서비스는 엄마 뱃속부터 유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 문화,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말함
- 산림청은 도시숲, 정원 등 국민수요가 높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등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을 대폭 확충할 계획, 국가숲길, 동서트레일 등 숲길은 물론, 산림레포츠 시설, 수목장림, 숲경영체험림 등 새로운 수요에도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
- 산림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내 숲 조성,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 등 기반시설도 늘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하는 산림복지 서비스이용권(바우처)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 또한 산림치유를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하는 한편, 유아, 청소년들이 숲에서 맘껏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참조:산림청)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7개 신규 지정

< 3년간 지정 유지,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및 '재정지원 사업' 지원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 >

- *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7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힘, 그간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옴
 -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지위는 3년간 유지되며, 해당 기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 대상이 됨,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음
 - 올해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19일간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2개 기업이 신청했고 9개 기업이 신청을 철회, 보건복지부는 53개 기업에 대하여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조직형태 등을 고려해 서류검토·현장 실사, 지정심사를 거쳐 37개 기업을 신규 지정
 -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 사회적 목적 유형 중 사회서비스제공형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창의혁신형 기업이 10개, 일자리제공형이 5개로 그 뒤를 이음, 지역사회공헌형과 혼합형도 각각 2개와 1개가 포함
-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181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고, 이 중 5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으며,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이번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
 - 구체적인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이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확인 가능

※ 보도자료 참조(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

3 중앙정부 복지현안

동절기 한파 대비, 경로당에 난방비 월 3만 원 추가 지원

< 물가 인상 및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

- *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한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약 6.8만 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힘
 -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
 -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경로당 6만 8천 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한 것에 이어 이번에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8.1%)하여 추가 지원

구분	'21.11~'22.3월	'22.11~'23.3월	'23.11~'24.3월	비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11~3월, 5개월)	월 32만 원	월 37만 원	월 40만 원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

- *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에 인상된 난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 발족

<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극복을 위해 종교계 협력 호소 >

- *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월 3일(금) 7개 종교단체*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함
 -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문제, 특히 저출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 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관심과 협력을 구하고자 마련됨
- *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협의체 발족을 시작으로 ▲결혼·출산·양육 관련 긍정적 인식확산 캠페인 ▲작지만 성스러운 결혼문화 확산 ▲예비 부부 지원 등 종교단체별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종교단체와 함께 추진할 예정

붙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 회의 개요

- * 간담회 개요
 - (목적)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교계와 연대하여 협력방안 모색
 - (일정) 2023년 11월 3일(금) 15:00~16:15(75분)
 - (장소) 포시즌스호텔서울 6층 SOOM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7)
 - (참석자)
 -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이운신 인구정책총괄과장 등
 - (저고위) 홍석철 상임위원
 - (종교계) ▲한국교회총연합회 장종현 상임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도심 사회부장, ▲원불교 교정원 이명아 문화사회부장, ▲성균관 방동연 대외 협력실장, ▲천도교 이미애 사회문화관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진효준 가정과생명위원회 총무,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재우 사무총장
- *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5:00-15:02 ('02)	참석자 소개	사회자
15:02-15:05 ('03)	인사말씀	1차관/상임위원
15:05-15:25 ('2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정부 간 협력방안	인구아동정책관
15:25-16:10 ('4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제안	
16:10-16:13 ('03)	기념 촬영	
16:13-16:15 ('02)	마무리 및 폐회	

※ 보도자료 참조(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

5 중앙정부 복지현안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 개최 >
<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분야 유기적·종합적 대응방안 논의 >

- *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함
 -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22년 전체 불법도박 규모 102.7조 원, 전자기기와 온라인 도박 시장의 성장으로 '19년 81.5조 원에 비해 약 26% 성장, 최근 5년간 모니터링 건수 중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가 압도적 비중(99%)

[연도별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

(단위: 원)

연도	2008 (운영자)	2012 (운영자)	2016		2019 (이용자)	2022 (이용자)
			운영자	이용자		
매출액	53조 7,028억	75조 1,474억	83조 7,822억	70조 8,934억	81조 5,474억	102조 7,236억

[불법도박 모니터링 내역]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율)
온라인 도박	25,521	16,476	20,928	18,942	26,957	108,824 (99%)
오프라인 도박	166	186	217	205	273	1,047 (1%)

- (여성가족부) '23. 4. 전국 중1· 고1 학생 약 88만 명 대상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8,838명으로 확인

<학년별, 성별 사이버 도박 위험군 청소년>

(단위: 명)

구분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
남	11,511	8,888
여	4,798	3,641
소 계	16,309	12,529

출처:여성가족부 2023. 5. 29.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5년 만에 감소」 보도자료

-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함

<청소년 도박 관련 주요 사건·사례>

- ▶ 도박으로 자살에 이른 고등학생 ['23. 3. 1. KBS]
 - 고1 재학생 A군은 지난해 온라인 불법도박을 접하고 SNS에서 사채로 도금을 빌림. 뒤늦게 상황 인지한 A군 부모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치유센터 상담 요청했으나, 그 사이 A군은 사채 독촉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3. 1. 스스로 목숨을 끊음
- ▶ 금은방 유리문 '와장창'..도박빚 갚으려 귀금속 텀 10대들 ['23. 6. 2. 파이낸셜 뉴스]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새벽 시간대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 수천만원 어치 훔친 10대 등(총 3명) 특수절도로 부천시청에서 기소
- ▶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 “아빠, 도와주세요” 아들의 편지 ['23. 11. 1. SBS]
 - 50대 A씨는 평일 아침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도박 중독 치료 위해 정신병원 방문
 - 중1때부터 3년 동안 불법온라인 도박에 쓴 돈이 5,000만원 이상
 - 아들의 도박을 멈추기 위해 경찰에 신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속 막아달라고 사정, 아들은 도박자금 마련 위해 중고물품 사기 범죄까지 저지름

- 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 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 출범
-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

· (참여기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포함)

- * 정부는 11월 3일(금)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① 수사·단속, ② 치유·재활, ③ 교육·홍보, ④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 ❶ 수사·단속

- 법무부, 대검찰청 :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의율
- 경찰청 : '23. 9. 25.부터 '24. 3. 31.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 전개
- 방통위 :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한 신속 심의, 포탈,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 아울러 보다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의뢰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삭제
- 여성가족부 : 불법도박 사이트, SNS 광고·홍보 게시글 등 점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추진

- ❷ 치유·재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 여성가족부 :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 위한 진단조사 실시, 상담·치료 연계, 기숙캠프 운영
- 보건복지부 :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및 도박 중독상담, 사례관리 지원 강화

- ❸ 교육·홍보

- 법무부 : 비행청소년·소년원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월 1회 편성, 전국 학교·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중독예방) 강의 운영
-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 강화 관련 시·도교육청 안내,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정부 보유 매체 및 뉴미디어(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대상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홍보 다면화
-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 ❹ 조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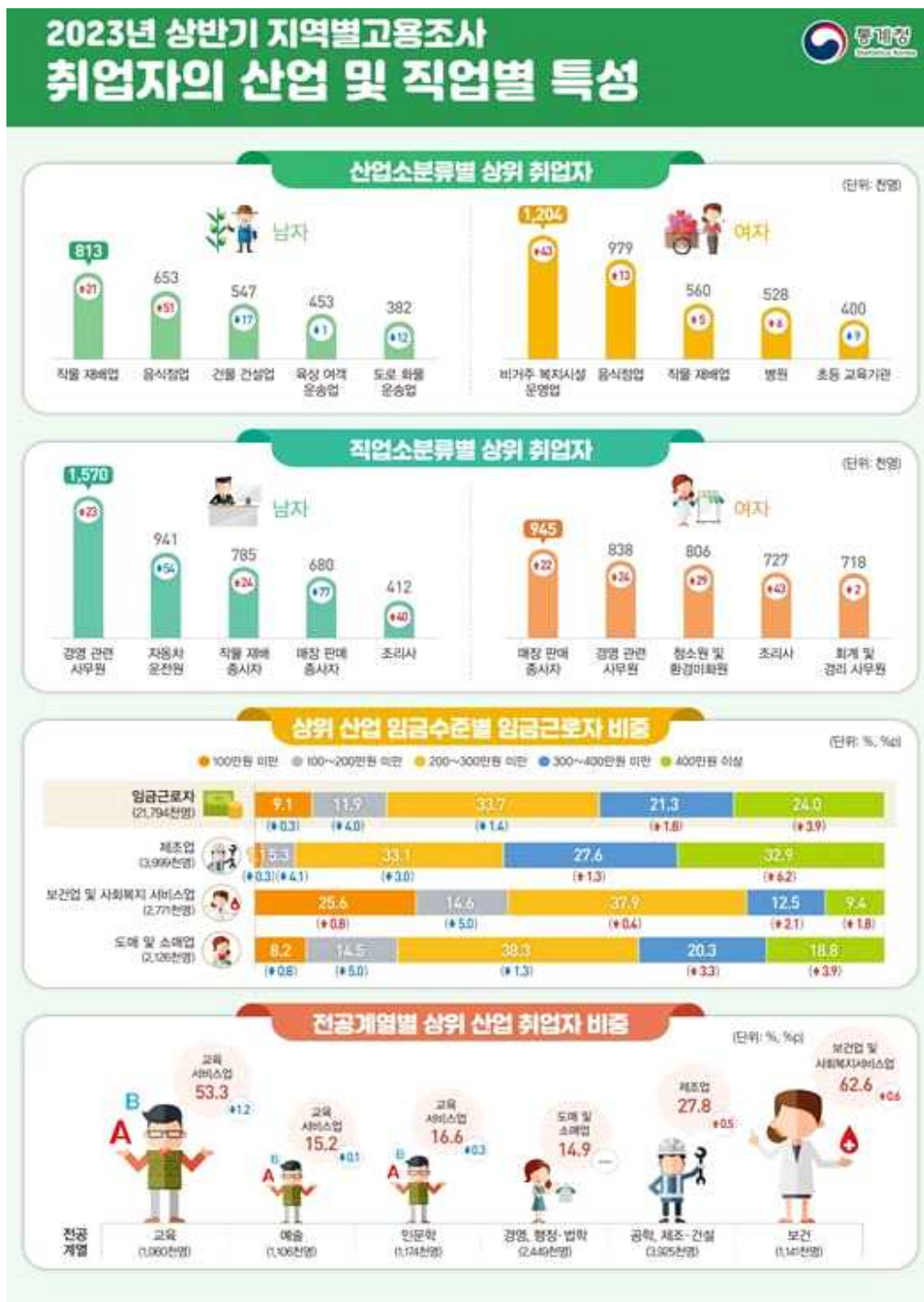
- 교육부 :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인원 확대, 교사·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 연구 추진

※ 보도자료 참조(법무부 형사기획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3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 자료 : 통계청 자료(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